

Memorial Service Transcript

16:58:44 오늘. 우리 노순애 사모님 천국 환송예배 이렇게 또 같이 한자리에.

16:59:25 음.

16:59:30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.

16:59:40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

16:59:46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노사모님 천국 한송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.

17:00:04 세상은 이 시간이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. 저희에게는 이 시간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.

17:00:24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사모님을.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.

17:00:30 주님께로 가게 하시나니 참 감사합니다.

17:00:41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함이 있지만 또 아픔이 있기에, 또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.

17:00:58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우리 찬송가 육백십장입니다.

17:04:59 그래 기도하겠습니다.

17:05:08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

17:05:15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, 우리 노순애 사모님을 위한 천국 환송예배로 모였습니다.

17:05:25 하나님 이 예배는 정말 기쁨이 예배이고 감격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.

17:05:40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.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사모님의 걸음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.

17:05:57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

17:06:05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.

17:06:13 주님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노사모님이 가시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

17:06:20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끌려 보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.

17:06:43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

17:06:52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은요. 아가서 이 장 십 절에서 십사 절 말씀입니다.

17:07:22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람 내 어여쁜 자야. 일어나서 함께 가자.

17:07:39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.

17:08:00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.

17:08:10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. 일어나서 함께 가자.

17:08:28 바위틈 낭떠러지 음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.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.

17:08:35 네 소리를 듣게하라.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. 아멘.

17:08:54 우리 이시간 특별히 우리 사모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친구 같은, 멀리서 캐나다에서 우리 연주를 해주시기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.

17:09:10 같이 한번 잔잔히 연주를 듣겠습니다.

17:15:18 어. 우리. 박복동 권사님은 우리 노순애 사모님 제자. 캐나다에 또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운 분이었고.

17:15:31 예 보고싶으시고 들려주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연습해서. 이렇게 연

주를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
17:15:57 오늘 설교 제목이 "함께 가자" 입니다.

17:16:07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가면 즐겁습니까? 오늘 주님께서

17:16:14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데 어떻게 부르냐면.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.

17:16:37 이 말들 속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

17:16:44 오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사모님이.

17:16:50 그분을 너무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좀 서두르신 것 같아요. 그래서.

17:16:56 새벽같이 지난 목요일날 새벽같이 급하게 부르셨고.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.

17:17:17 누가 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? 나를 누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담아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?

17:17:34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밖에 없어 하고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.

17:17:49 이땅에서 그래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?

17:18:04 근데 오늘 우리 사모님을 부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

17:18:18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부르셨어요.

17:18:23 그러기에 그 부르심은 그 부름받은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.

17:18:44 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. 여기는, 저 여러분 알겠는 여러분들도.

17:18:51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러기에 그렇게 길지는 않게 남아있다는 겁니다.

17:19:12 제가 보니까.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.

17:19:18 더 많으신거같아요. 가깝습니다. 날이.

17:19:34 여러분 기억하세요.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

17:19:40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소망이 없는 남은 삶을 살기에

17:19:48 거기에는 다툼, 고집, 화 그리고 불안, 걱정,

17:19:55 두려움, 절망속에 자기를 가둬놓는 그런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.

17:20:29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죽음이 어떤 날이냐면

17:20:35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어 가지고,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고생이 변하여 참 자유가 시작되는 시간이고

17:20:45 깊은 얼음속에서 부산하는 광명의 아침을 맞는 것처럼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문입니다.

17:21:10 네. 바로 주님이

17:21:17 그 믿는 자들에게, 그리고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하면

17:21:23 우리가 거할 집. 을 준비해 뒀습니다.

17:21:33 자.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그 집. 여러분. 이 땅에서 그럴싸하게 힘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.

17:21:48 그런데 그 집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더 좋을까요? 아니면 더 험악 할까요?

17:22:06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입니다.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

17:22:17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.

17:22:24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.

17:22:32 이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.

17:22:53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

17:22:59 하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. 그때부터는 내가 그 말씀에

17:23:05 거기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.

17:23:16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하고

17:23:24 세상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은 다를 겁니다.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

17:23:34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17:23:47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

17:24:07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.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

17:24:16 방향을 잃지 않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

17:24:22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.

17:24:38 성경은 그 사람을 아주 심풀하게 이야기합니다.

17:24:43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

17:25:04 예수님을 영역한 사람은 이제부터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.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

17:25:09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.

17:25:21 그런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. 세상에 삶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.

17:25:42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날 동안에

17:25:51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17:26:09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. 그런데.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

17:26:16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을 맞이한 다른 처녀는 왜 맞이했냐면

17:26:23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

17:26:38 구입해야 됐어요. 투 랩.

17:26:47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운의 분량이 뭐냐면, 저는 그것이 기도의 분량.

17:27:05 이 기도의 분량이라는것이 아, 나 밥먹는데 밥먹을때 기도하는데요.

17:27:10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요. 이 정도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.

17:27:27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. 내가 시간을 정하여.

17:27:32 그 기도가 나의 습관처럼.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채워질 때.

17:27:37 비로소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게 됩니다.

17:28:02 이 기도분량이 채워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.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있는 그 다섯 처녀는.

17:28:10 신랑을 맞이하는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. 마찬가지로.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사람은.

17:28:16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웰컴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.

17:28:40 오늘 우리 사모님이.

17:28:48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

17:29:05 우리 사모님이. 그 마지막을 다하는 순간까지.

17:29:12 그 손에서 말씀이, 그 성경책이,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또 읽으려고 보고 계시고.

17:29:19 또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같이 찾아가면 그 소리를 내서 또 같이 찬양하시려고 하고

17:29:25 그래서 그에게서, 그 모습이. 고백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.

17:29:45 추모 영상 가운데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. 저희가 새벽에 예배 끝나고 아침에 가서.

17:30:00 "좋으신 하나님, 좋으신 하나님"...

17:30:13 그 찬양 부를 때. 그 밝은 모습으로 우리 사모님이

17:30:18 힘을 다해서 따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

17:30:34 사모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. 어디서요? 그 침상 위에서.

17:30:51 뭐 배불렀을 때, 일이 잘 됐을 때, 내가 너무 기뻤을 때 이럴때 좋은 시간이라 보지 않고 그때보다도 침상에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그저 손만 조금 들수 있고 입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

17:31:09 하나님은 좋은 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.

17:31:29 우리 사모님이 그 침상에서. 여분의 기름.

17:31:35 기도의 분량들을 채우셨기에. 주님께서 빨리 오라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였을 때.

17:31:40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. 그 품에 덥석 안길 수 있었습니다.

17:31:50 여러분 사모님의 삶이 무슨 끝난 게 아닙니다.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님이
17:32:05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던 그 바톤이.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
17:32:11 옮겨졌습니다. 이제 사모님에 다녀왔던 그 걸음. 그 방향 우리도 그 바톤 이어받고 나
아가야 할 것입니다.
17:32:31 다시한번. 음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지만.
17:32:38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시고.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또 따님과 가족에게.
17:32:47 또 여기 있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
축원합니다.
17:33:05 그리고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 잡아서 사모님 저왔어요 라고 그 만남이 기대가 되는
그런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
17:33:22 기도하겠습니다.

17:33:28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우리 사모님을 주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이 천
국 환송 예배
17:33:35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
17:33:45 오늘 이 예배는 사모님이 마지막 주님 품으로 가시면서.
17:33:55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.
17:34:06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사람을 손잡고 엉뚱한 사람과 함께 가지 말고.
17:34:17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17:34:35 이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고 고백합니다. 저희들도 함께.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.
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
17:34:50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
17:35:00 음 추모 영상 보겠습니다.

17:35:13 그랬더니.
17:35:18 아래 플레이 버튼 플레이를 누르지. 화살표.
17:35:24 화면에 아래 화살 표 있죠. 어떠세요?
17:35:41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.
17:35:53 다시 앞으로 좀 놀려주실래요.
17:36:08 다시 틀어줘여, 버튼.

17:42:09 영상에 나와있는 어 마지막 부분은. 음. 지난 목요일날 사모님이 하나님 부름받았는데
바로 그 전주 그 모습이었습니다.
17:42:18 그렇게 찬양할 때 같이 이렇게 찬양을 따라 하신 분입니다.
17:42:34 그날 아침에 갔는데. 사진에 봤죠. 누워서 뭘 보시고 있는 겁니다.
17:42:46 그 성경책이 너덜너덜한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하고.
17:43:05 그날은 유난히 이쁘셨습니다. 그날은.
17:43:10 유난히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을 그렇게 소리를 내서.
17:43:16 같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.
17:43:39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. 그날은 위로 받고온 날입니다.
17:43:52 사모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.
17:44:02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님처럼 마지막까지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
17:44:24 찬송가 이백삼십오 장.

17:48:05 축도하겠습니다.
17:48:12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
17:48:23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
17:48:31 주님과 함께하는 노 사모님 위에
17:48:38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

17:48:48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머리머리 위에
17:48:57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. 아멘.

17:49:04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또 일을 마치고 인사 나누시구요. 우리 옆으로 건너서 우리 같
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.

17:50:23 인사를 하시고요.